

“국가대표 치어리더 2명 배출했어요”

글 유인중 편집부 / 사진제공 마포청소년수련관



치어리딩 스포츠클럽 축제에서 수상한 마포청소년수련관 팀원들. 뒷줄 왼쪽 두 번째와 오른쪽 끝이 국가대표로 선발된 김미현과 이원준 학생이다(왼쪽). 단체활동인 치어리딩은 협동심과 사회성을 길러준다(오른쪽)

서울시립 마포청소년수련관(관장 김원배)은 2014년 7월부터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 40명에게 치어리딩(Cheerleading)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스포츠 경기에서 구호와 춤, 노래 등으로 응원을 주도하는 치어리딩은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르기에 효과적이었다. 마침 장진우(40) 당시 생활체육팀장(현 업무지원팀장)이 대한치어리딩협회 기술위원장이란 만큼 전문가여서 강사 걱정이 없는 데다가, 아산재단의 ‘2014년 사회복지 공모사업 지원단체’로 선정돼 프로그램 운영비(2,000만원)를 지원받아 비용 부담도 덜 수 있었다.

팀 이름은 검독수리처럼 비상하라는 의미의 ‘블랙 이글스’로 정했다. 초 1~중 3의 팀원(남자 15명, 여자 25명)은 열성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매주 토요일 4시간의 정규교육만으로는 아이들의 갈증을 채울 수 없어서 주 1회 보충교육도 실시했다.

성과는 3개월 만에 나타났다. 10월 25일 서울 염리생활체육관에서 열린 마포구연합회장배 치어리딩대회에서 스티트 치어리딩 부문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11월 8일 서울대 체육관에서 개최된 치어리딩 스포츠클럽 축제에서는 초등부와 중등부 2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세륵중 3학년인 이원준, 김미현 학생이 치어

리딩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경사까지 겹쳤다. 박은빈(세륵중 1) 학생은 새로 생기는 KT 프로야구단의 치어리더 선발에서 최종 심사까지 올랐다가 나이가 어려 탈락했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치어리딩을 배운 뒤 아이들이 엄청 바뀌었습니다. 우선 얼굴이 밝아졌고,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약을 먹던 아이는 행동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게 됐어요. 대학의 체육학과 진학이라는 꿈도 생겼습니다. 틈날 때마다 어린이집 등에서 펼치는 재능나눔활동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고요.”

치어리딩의 성과를 자랑하던 장진우 팀장은 “아산재단 덕분에 치어리딩을 가르칠 수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없어 아쉽습니다. 우수 프로그램의 경우 아산재단에서 2~3년 동안 교육비를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있습니다. 아산재단은 1977년부터 4,100여 복지단체에 376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산재단은 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계층의 자녀,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미혼모, 폭력피해여성,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